

민주당 광주·전남 지방의원 후보 확정

정치신인 약진... 현역 대거 고배

광주 동구의원 9명중 2명만 살아남아 광역의원 여수 3곳·고흥 2곳 등 새얼굴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지방(광역·기초) 의원 후보 선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민주당 지방의원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탈락과 함께 정치 신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의원의 대폭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현역 의원 대거 탈락**=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과 25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광주시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를 모두 선출했다. 다만,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는 1차 컷오프 과정에서 재선이 제기된 서구 광역 3선거구와 남구 광역 2선거구는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보류됐다. 광주시의원과 기초의원 경선에서 새로운 '젊은 피'들의 '선전(善戰)'이 두드러졌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패배했고,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의원들도 정치 신인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손재홍·나중현·진선거·조호권 등 4명의 현역 시의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뿐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19명의 광역의원 중 20% 가량 살아남은

셈이다. 동구 광역 1선거구의 양혜령 후보가 재심을 신청한데다 경선 보류지역인 서구 3선거구에서 경선 후보인 김성숙 의원이 살아 돌아올 것을 감안한다면 총 4~6명 정도가 시의회에 재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동구의 회 의원 9명 중 홍기월·남순심 의원 등 2명만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서구의회도 9명의 의원 중 장재성·고선란·양영애 3명의 현역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남구의회도 현역 의원 11명 중 5명만이 후보로 선출됐다. 북구의회도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 이때문에 풀뿌리 기초의원도 60% 이상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피' 대거 수혈**=광주시의원 후보로 선출된 17명의 후보의 연령대는 40대가 11명, 50대 5명, 60대 1명으로 평균 연령이 47세로 젊어졌다.

남구 광역 3선거구의 나중현 후보가 66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광산 광역 3선거구의 송경중 후보가 40세로 가장 젊은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대 시원들의 연령대는 19명 중 40대가 4명, 50대 8명, 60대 5명, 70대 2명 등인 점

■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후보

지역 선거구	후보자	지역 선거구	후보자
동구	1 김영우	1 진선거	
	2 손재홍	2 조오섭	
서구	1 이춘문	3 문상필	
	2 김보현	4 홍인화(차)	
	3 보류지역	5 조호권	
	4 김성현	6 이은방	
남구	1 조영표	1 윤봉근	
	2 보류지역	2 허문수	
	3 나중현	3 송경중	
		4 김민중	

을 감안하면 제6대 시의회는 10세 이상 나이가 줄어드는 '젊은 피'로 채워질 전망이다.

또한, 시의원 후보 17명 중 김민중·홍인화 후보 등 5명이 구의원 출신으로, 선거를 한 단계 높여 시의회에 도전한다.

반면, 의정경험이 없는 후보들이 많아 집행부 견제, 조례 제정 등의 의정활동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의원도 물갈이 현실화**=여수의 경우 6개 선거구의 도의원 후보가 선출됐다. 신설된 2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4개 선거구 중 기존 현역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곳은 1개 뿐이다. 3개 선거구는 새로운 도의원 후보자로 물갈이가 됐다.

목포는 1개 선거구가 물갈이됐고 고흥은 2개 선거구 모두 기존 도의원 대신 새 후보자가 선출됐다. 보성은 2개 선거구의 후보자가 새로 바뀌었고 해남도 1개 선거구가 새 후보자로 선출됐다. 완도와 광양, 무안, 신안, 영암,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등

■민주당 광주 기초의원 후보

지역 선거구	후보자	지역 선거구	후보자
동구	개3 남순심(차)/홍기월, 박은섭	개3 김수영(차), 이세근, 장재성	
	내2 조종진, 이선순	내3 최민수, 남광민, 강원호	
	대2 박대현, 조세철	대2 김애정(차), 김점기	
서구	개3 김수영(차), 이세근, 장재성	개3 최민수, 남광민, 강원호	
	내3 오광교, 강인택, 고선란(차)	내2 김애정(차), 김점기	
	대2 이등춘, 김영선	대2 신인용, 권용일	
	대3 황현택, 김옥수, 양영애(차)	대3 박춘수, 심병희, 이강욱	
남구	개3 최민수, 남광민, 강원호	개2 반재신, 이왕섭	
	내2 김애정(차), 김점기	내2 문혜옥(차), 심재섭	
	대2 신인용, 권용일	대2 미광민, 최기영	
	대3 박춘수, 심병희, 이강욱	대2 신수정(차), 고재을	
북구	개2 반재신, 이왕섭	개3 김동찬, 이동국, 이창재	
	내2 문혜옥(차), 심재섭	개2 박영정(차), 이병석	
	대2 미광민, 최기영	개2 박영진, 류선복	
	대2 신수정(차), 고재을	대2 이영순, 김명수	
광산구	개2 박영정(차), 이병석	개3 채중순, 김동호, 이준형	
	개2 차경섭, 전양복	개2 조승유, 임이엽	
	개2 이영순, 김명수		
	개3 채중순, 김동호, 이준형		
	개2 조승유, 임이엽		

10개 선거구에서도 기존 도의원들이 아닌 새로운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담양은 2개 선거구에서 도의원 후보자가 모두 새로 바뀌었다. 25일 현재 순천을 제외한 지역이 모든 지역의 도의원 후보가 선출됐으며, 기초의원 후보는 29일까지 선출된다. /최권일·김지용기자 cki@kwangju.co.kr

조직력이나 인기도나

무소속 청장 vs 지역 의원 복심

광주 남구청장 선거 관심 집중

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서구청장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끝나면서 이제 본선 대결에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구청장 선거의 경우는 광주에서는 현직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유일한 지역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구청장 선거의 경우 현 황일봉 청장 대 광주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강운태 의원 간 대결 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어느 기초단체장 선거보다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공천권을 쥐고 최 전 시의원과 함께 남구의 최후권자 보좌관 출신인 최영호 전 후보가 됐다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이미 지난 5월 "남구주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민주당에 더는 남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황 청장 측은 최 전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최 전 시의원의 본선 경쟁력이 다른 후보를 압도한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최 전 시의원은 오랫동안 광주 남구에서 정치활동을 해와 인지도도 높은 편이며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해왔던 때

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후보로 평가됐다. 이 점이 중앙당의 복심을 뒤집고 이번 시민공천배심원제에서 승리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 전 시의원이 황 청장의 3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는 강 의원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웬만한 후보로는 인지도와 조직력이 우수한 황 청장을 이기기 힘들다고 분석해왔다. 강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권을 쥐고 최 전 시의원과 함께 남구를 누빌 경우 황 청장과 대등한 경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 의원은 남구에서 무소속으로만 두 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황 청장이 호락호락 당할 후보는 아니라는 것도 지역정가의 예측이다. 남구에서 두 번이나 무수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구청장을 한 것은 황 청장이 아니었으면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25일 "중앙을 지켜온 이윤정 남구지역위원장의 행보가 승패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쨌든 남구가 이번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용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 남구청장 후보 최영호씨

배심원단 53% 득표

6·2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에 최영호 전 국회의원(강운태) 보좌관이 선출됐다.

최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에서 유효투표 130표 중 57표(2순위 투표 합산 결과 53.8%)를 얻어 49표(46.2%)를 얻은 김영집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에 선정됐다.

최 후보는 1순위 개표 결과 39표를 얻어 최다 지지를 받았지만,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36표를 얻은 김영집 후보와 2순위 개표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벌였다. 정재훈, 김화진 예비후보는 1순위 개표 결과 각각 32표와 23표를 얻었다.

경선장에는 배심원 132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130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들



은 제1선호 후보와 제2선호 후보를 각각 득표했다.

1인 2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 득표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2순위 표를 개표한 뒤 다 득표자 2명을 선택한 표를 1차 득표로 합산해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정하게 된다. 최영호 후보는 후보 선출 소감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선정됐다고 해서 선거에 이긴 것이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반드시 남구청장에 당선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 투표에 앞서 조현욱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후보자 간 정치·정책 토론, 상호토론, 후보자 종합토론, 배심원 서면질의 등으로 이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4일 광주 무등초등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 북구 갑 시의원, 구의원 후보 경선대회에서 선거인단이 줄지어 투표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안 ↔ 오사카 직항

무안-제주 항공편 판매
 Jinair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
 ☎062-325-6070, 225-3336 FAX 062-325-6555, 225-5008